불황 늪에 갇힌 지역경제

“10년후 내다보고 경쟁력 기르자”

❶ 지갑닫은 소비자
❷ 빚더미 가계
❸ 벼랑끝 자영업자
❹ 산업계도 아우성
❺ 전문가 진단

“기업 철저한 자기분석 투명성 높여야”

◇조승제 〈조선대 경영학부 교수〉

세계경제가 또 다시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경제 위기로 시작된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이 시점에서 다시 유럽의 위기가 우리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는 해외시장의 경제변동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호황기에는 특별한 계획과 분석 없이도 경제의 순풍에 기업경영을 맡겨도 큰 탈 없이 기업의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불황기에는 철저한 자기분석과 계획이 없다면 기업의 생존이 큰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불황타개를 위한 다음의 4가지 원칙을 강조하고자 한다.

1. 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회계의 투명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기업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2. 과거의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예측가능한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 세계경제의 흐름, 경쟁업체의 장점, 산업지표 등을 참고하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정책을 수립하여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기업 목표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3. 기업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구성원들과의 협력 속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포용력 있는 경영방식이 필요하다.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4. 경쟁업체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쟁업체와의 협력이나 업무협조가 불황기에는 더욱 필요하다. 함께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에 대한 배려의 정신을 함께 만들어 간다면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협력자로서 함께 기업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복잡한 것 같은 기업의 운영도 기본은 개인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 지역의 모든 기업들이 오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튼튼한 지역경제의 기반이 돼야 한다.

“연구·개발 투자 성장 잠재력 키워야”

◇오병기 〈전남발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

지난해 2/4분기 이후 경기둔화 추세가 눈에 띠게 나타나고 있다. 전기와 비교한 GDP 성장률이 1% 미만을 보인지 1년이 지났고, 산업생산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모습이다. 우리 지역경제 또한 수출과 산업생산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업계 1위를 기록하는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불경기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R&D 투자를 확대했었다.

인텔(Intel)은 IT버블 붕괴 당시 영업이익률이 30% 가량 급감하는 등 위기에 봉착했으나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확대해 업계의 선두자리를 고수했으며, 포스코(POSCO) 또한 2차 오일쇼크 직후인 1980년대 초반 세계 철강 불황기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철강업계 선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불경기에 R&D 투자를 증가시키고 대비를 한 기업이 결국 호황기에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기순환의 관점에서 불경기는 단기적 현상일 뿐이므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지역과 국가도 마찬가지다. 경기불황은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한 국가나 한 지역 차원에서 막아내기는 힘들지만, 몇 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으로 산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세계 경제는 식량과 에너지확보가 가장 큰 현안 과제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 확보를 위해 농수축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잠재력을 가진 해양에너지자원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남과 광주지역의 풍부한 먹을거리 산업을 기반으로 농수축산업과 생명산업을 융복합화하고, 해상풍력이나 파력발전 등 집중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해양에너지산업의 R&D 투자를 증대시켜 10년 후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광주 전세가 2년전보다 2590만원 올라

평균 1억813만원…전남은 전국서 가장 낮아

광주지역 세입자들이 올 가을 같을 집을 재계약하려면 평균 2590만원의 추가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은 1437만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년 전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과 이달 셋째 주 전세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국 평균 전세가격이 2864만원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2억2234만원에서 2억6591만원으로 4357만원 올라 재계약에 드는 추가비용이 가장 컸다. 이어 부산이 3210만원, 경남 2998만원, 경기 2948만원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평균 전세가격이 1억813만원으로 2년 전(8223만원)보다 2590만원 올랐다. 전남은 7455만원으로 1437만원 상승했지만, 전국에서 전세가격이 가장 낮았다. 전북은 8078만원에서 1억320만원으로 2243만원 상승했다.

박정욱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올해만 놓고 보면 전세시장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지만 2010년과 지난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셋값이 이미 크게 오른 상황이다”며 “가을 이사철을 맞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흥석(왼쪽 두번째) 광주상공회의소 회장과 펑원칭(〃 네번째) 중국 칭다오상회 회장이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호텔에서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광주상의 제공〉

광주상의, 中칭다오상회와 교류 협약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는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칭다오상공회의소(중국국제상회 칭다오상회)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한중 경제지도자 회의 공식 일정 중 하나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는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중국 측에서는 펑원칭 칭다오상회 회장과 완지페이 중국국제상회 회장, 장신치 칭다오시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투자·무역·금융·기술 등 경제교류 지원 ▲해외시장 경영 자문 ▲경제무역시찰단 상호 파견 ▲설명회·포럼·국제 전시회 상호 참가 및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실질적 우호교류 협력 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 단체간 책임자를 지정해 평소에 연락을 유지하고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은 “이번 민간 교류를 시작으로 지자체 간 우호교류·협력을 확대해 중국기업들의 광주지역 투자가 증대되고, 지역 기업들의 수출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공정위 식탁물가 잡기 식품가격 고강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줄줄이 오르는 가공식품의 짬짜미 의혹을 단속하려고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정밀 관찰에 들어가 짬짜미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고강도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서민 가계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생활필수품의 가격 인상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1일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한꺼번에 가격 인상이 이뤄진 가공식품 품목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식탁물가’를 구성하는 라면, 참치, 음료수, 즉석밥 등 가공식품들이다.

CJ제일제당과 오뚜기는 즉석밥, 동원F&B는 참치, 롯데칠성과 한국코카콜라는 음료수, 삼양라면과 팔도는 라면,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맥주 가격을 최근 올렸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이 적절했는지, 밀약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로 담합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 입주 日 23개기업 협의회 발족

대일 투자·통상 강화…초대회장에 고이즈미 히로미씨

광주시가 일본과의 투자·통상 등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일본 투자기업 협의회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광주에 입주해 있는 일본 투자기업을 대표하는 일본 투자기업 협의회를 정식으로 발족했다.

협의회 초대회장으로는 한국알프스(주)의 고이즈미 히로미(小泉 朴美) 대표이사가, 총무로는 한국IMC(주) 백용진 상무가 각각 추대했다. 시는 협의회 발족을 위해 지난 4월 광주 소재 일본투자기업인을 초청해 1차 간담회를 가졌으며, 일본과의 창구 역할을 해 줄 제트로(JETRO·일본무역진흥회) 서울사무소와의 협의를 거쳤다. 이날 행사에는 제트로의 오스나 마사코(大砂雅子) 소장과 부소장이 모두 참석해 광주 일본투자기업협의회 출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광주시는 일본 투자기업협의회가 정식 발족함에 따라 협의회 자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의회에서 제기되는 일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기업의 환경개선 및 일본기업 유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초대 회장에 고이즈미 히로미 한국알프스(주) 대표이사는 “이번 협의회의 출범을 통해 협의회 내부의 소통은 물론 일본 투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본과 광주 소재 일본 투자기업 간의 경제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에는 총 23개의 일본투자기업들이 총 6400만 달러의 투자를 했으며, 2011년 기준 5000억원의 매출에 22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 회사측에 수정안 촉구

법원의 파업 금지 결정에 따라 하룻만에 전면파업을 전격 철회한 금호타이어 노조(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가 21일 제7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사법부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을 규탄하고, 회사 측에 수정안 제시를 촉구했다.

노조는 공고를 통해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결과에 불복, 이의신청 제기와 항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43.22 (-3.09)
▲ 코스닥지수 491.72 (+1.59)
▼ 금리 (국고채 3년) 2.90% (-0.05)
▼ 원·달러 환율 1,131.10원 (-4.4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